



보도시점 : 2025. 12. 15.(월) 11:00 이후(12. 16.(화) 조간) / 배포 : 2025. 12. 15.(월)

새정부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패스, K-패스 「모두의 카드」 출시

- K-패스 어르신 유형(환급률 30%) 신설, 참여 지자체 추가 등 이용자 혜택 확대

【관련 국정과제】 60.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김용석, 이하 대광위)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(대중교통 K-패스*)을 확대 개편한다.

* (K-패스)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(시내버스, 지하철, 광역버스, GTX 등)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(20~53.3%)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('24.5~)

□ 먼저,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*을 초과하여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「모두의 카드」를 도입한다. 이를 통해 출퇴근,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.

*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상한선으로 이를 넘겨서 대중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초과분 모두 환급(지역별·유형별에 따라 환급 기준금액 차등)

○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*로 차등 적용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* 인구감소 등에 따라 4개 지역(수도권, 일반 지방권, 우대·특별지원지역)으로 구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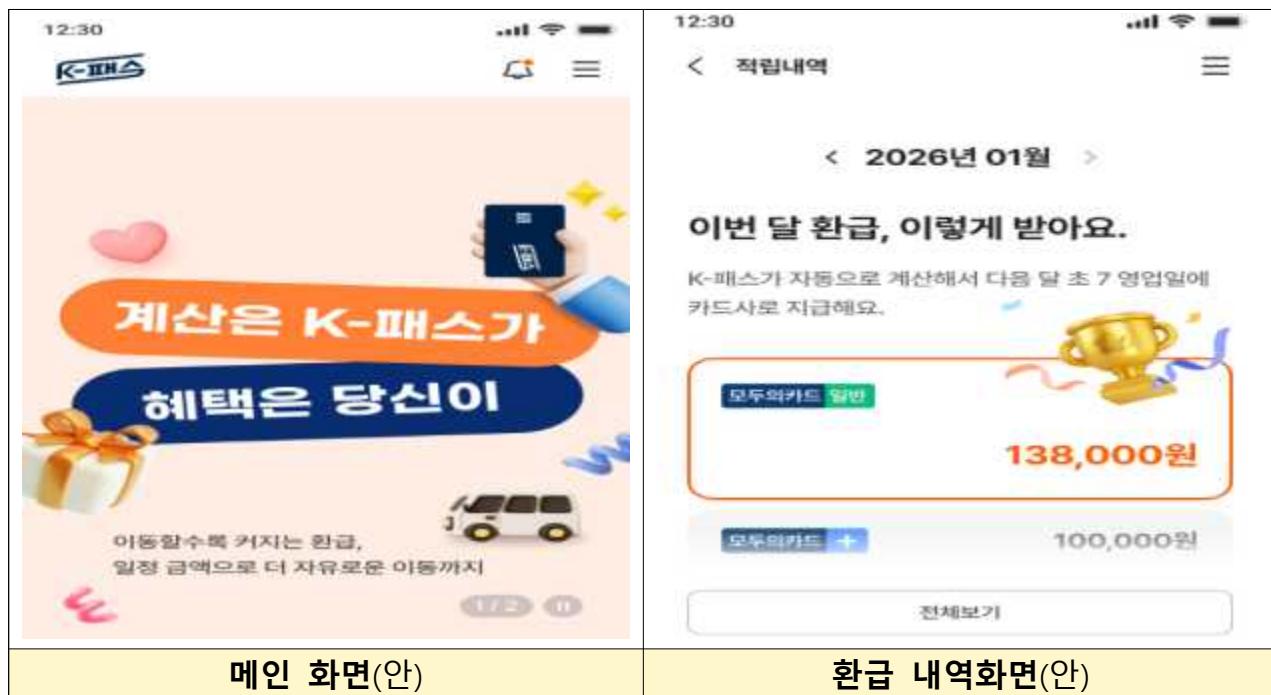
○ 종류는 일반형·플러스형 2가지로 구분되며,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(환승금액 포함)이 3천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고,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대해 환급이 적용된다.

* (환급 예시, 일반국민·수도권 기준) 일반형 수단 9만원, 플러스형 수단 3만원 지출
→ 환급 방식 : 모두의 카드 일반형 2.8만원(9만-6.2만), 플러스형 2만원(12만-10만)

< 「모두의 카드」 환급 기준금액 >

구 분	일반 국민		청년·2자녀·어르신		3자녀 이상·저소득	
	일반	플러스	일반	플러스	일반	플러스
수도권	6.2 만원	10 만원	5.5 만원	9 만원	4.5 만원	8 만원
일반 지방권	5.5 만원	9.5 만원	5 만원	8.5 만원	4 만원	7.5 만원
우대지원지역	5 만원	9 만원	4.5 만원	8 만원	3.5 만원	7 만원
특별지원지역	4.5 만원	8.5 만원	4 만원	7.5 만원	3 만원	6.5 만원

- 환급 혜택은 시내·마을버스, 지하철부터 신분당선, GTX까지 모든 대중 교통수단에 적용되며,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.
-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기존 K-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.
- 특히, 입학, 취업, 방학 및 휴가 등으로 이용자의 생활패턴이 매달 다른 점을 고려하여, 사전에 기본형(기존 K-패스 환급방식)이나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, 사후에 K-패스 시스템에서 해당 월의 이용 금액을 합산하여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할 예정이다.
- K-패스 앱·누리집에서 이용자의 환급 금액(예상금액 포함)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이용자 화면도 개선한다.



- 「모두의 카드」를 반영한 K-패스 카드의 환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.

사례 1) 서울시 거주 만 40세 A씨 (3자녀 가구)	서울시 내 출·퇴근 시내버스·지하철만 이용, 월 교통비 6만원 지출	(기본형) $6\text{만원} \times 50\% = 3\text{만원}$
		(「모두의 카드」 일반형) $6\text{만원} - 4.5\text{만원} = 1.5\text{만원}$
		(「모두의 카드」 플러스형) $6\text{만원} - 8\text{만원} = 0\text{원}$
사례 2) 부산시 거주 만 45세 B씨 (일반 국민)	부산시 내 출·퇴근 시내버스·지하철만 이용 월 교통비 11만원 지출	(기본형) $11\text{만원} \times 20\% = 2.2\text{만원}$
		(「모두의 카드」 일반형) $11\text{만원} - 5.5\text{만원} = 5.5\text{만원}$
		(「모두의 카드」 플러스형) $11\text{만원} - 9.5\text{만원} = 1.5\text{만원}$
사례 3) 경기도(화성) 거주 만 22세 C씨 (청년)	서울로 통학 시내버스와 GTX 이용 월 교통비 15만원 지출 (시내버스 6만원, GTX 9만원)	(기본형) $15\text{만원} \times 30\% = 4.5\text{만원}$
		(「모두의 카드」 일반형) $6\text{만원} - 5.5\text{만원} = 0.5\text{만원}$
		(「모두의 카드」 플러스형) $15\text{만원} - 9\text{만원} = 6\text{만원}$

- 위 사례와 같이 통상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K-패스가 적용되고,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「모두의 카드」(일반형, 플러스형)가 적용되며,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혜택도 더 커지게 된다.

- 또한,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,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형 환급방식에 어르신(65세 이상) 유형을 신설하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.

* (현행) 기본형 환급률 일반 국민(어르신 포함) 20% → (개선) 어르신 유형 30%(+10%p)

- 한편, '26년부터 8개* 기초 지자체가 새로 참여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총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들이 대중교통 K-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
* (강원) 고성·양구·정선, (전남) 강진·영암·보성, (경북) 영양·예천 등 8개

- 향후 모든 국민이 K-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직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(11곳)의 참여를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.

- 김용석 위원장은 "「모두의 카드」가 도입된 대중교통 K-패스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"이라며,
- "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, 이용은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 K-패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"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	책임자	과장	나민희 (044-201-5080)
		담당자	사무관	이미래 (044-201-5087)
			주무관	이윤나 (044-201-5086)
			주무관	박상민 (044-201-5084)
	한국교통안전공단 데이터융복합처	책임자	처장	배혜성 (054-459-7260)
		담당자	부장	한현웅 (054-459-7441)
			선임연구원	육근상 (054-459-7263)

실제 이용자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까?

이용패턴에 따라 가장 좋은 혜택으로 자동 적용됩니다.



서울에서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A씨(일반 국민)의 월 이용금액은 70,000원이다.

✓ **기본형: $70,000 \times \text{환급률 } 20\% = 14,000\text{원 환급}$**

모두의 카드 일반형: 일반 대중교통 $70,000\text{원} - 62,000 = 8,000\text{원 환급}$

모두의 카드 플러스형: $70,000 < 100,000 = \text{미환급}$

14,000원을 환급해주는 **기본형**이 적용됩니다.

버스 이용금액이 80,000원, 광역버스 이용금액이 20,000원인

순천(일반 지방권)에 거주하는 B씨(일반 국민)의 월 이용 금액은 100,000원이다.

기본형: $100,000 \times \text{환급률 } 20\% = 20,000\text{원 환급}$

✓ **모두의 카드 일반형: 일반 대중교통 $80,000 - 55,000 = 25,000\text{원 환급}$**

모두의 카드 플러스형: $100,000 - 95,000 = 5,000\text{원 환급}$

25,000원을 환급해주는 **모두의 카드 일반형**이 적용됩니다.



버스·지하철 이용금액이 90,000원, 광역버스 이용금액이 20,000원인

부산(일반 지방권)에 거주하는 C씨(청년)의 월 이용금액은 110,000원이다.

기본형: $110,000 \times \text{환급률 } 30\% = 33,000\text{원 환급}$

✓ **모두의 카드 일반형: 일반 대중교통 $90,000 - 50,000 = 40,000\text{원 환급}$**

모두의 카드 플러스형: $110,000 - 85,000 = 25,000\text{원 환급}$

40,000원을 환급해주는 **모두의 카드 일반형**이 적용됩니다.



지하철 이용금액이 50,000원, 광역버스-GTX 이용금액이 90,000원인

경기도에 거주하는 D씨(청년)의 월 이용 금액은 140,000원이다.

기본형: $140,000 \times \text{환급률 } 30\% = 42,000\text{원 환급}$

모두의 카드 일반형: 일반 대중교통 $50,000 < 55,000 = \text{미환급}$

✓ **모두의 카드 플러스형: $140,000 - 90,000 = 50,000\text{원 환급}$**

50,000원을 환급해주는 **모두의 카드 플러스형**이 적용됩니다.

